

시 속에 나타난 마라도

강 영 기*

차 례

- I. 프롤로그
- II. 지역문학과 문학지도
- III. 마라도를 생성하는 다양한 의미
 - 1. 시작 혹은 끝의 의미
 - 2. 그리움의 공간
 - 3. 생명력의 공간
- IV. 에필로그

I. 프롤로그

이 글은 제주문학지도 작성¹⁾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 처음으로 마라도를 소재로 한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제주도 주변부에서부터 차근차근 제주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할 때, 그것은 더욱 알차고 쉽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1) 제주문학 지도의 작성은 제주문학사를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제주문학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제주사람들과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문화·관광 산업으로서 그 경제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작업을 통해 한국 문학 속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마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이다. 면적은 0.3km²이며, 인구는 2004년말 기준으로 할 때 98명이다. 한편, 마라도는 동경 126°16'10", 북위 33°6'31"에 자리하며, 동서 길이 0.5km, 남북길이 1.3km로 남북이 긴 모양의 유인도이다. 이러한 마라도는 자체적인 섬의 볼거리보다는 한국의 최남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곳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인에게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이라는 의미를 통해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마라도를 소재로 택한 시를 통해 시인이 인식하는 마라도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문학속의 제주』(제주문화원, 1997)와 『서정시 제주도』(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6)에 수록된 마라도와 관련한 작품으로 한정한다.

II. 지역 문학과 문학지도

지역 문학은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담아낸다. 또한 한국 문학이 지닌 보편성도 담아낸다. 그래서 지역 문학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한국 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문학은 분명 하나의 유기체로서 의미를 지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의미 관계가 미약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문단’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단’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역이라면 어딘지 모르게 약간 차이가 난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지역 문학은 중앙문단 혹은 서울 중심의 문학에 비해 일정정도 차이 혹은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결국 한국 문학의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 혹은 민족 문학의 추구해야 할 내용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지역 문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물론 각 지역마다 활발한 문학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활동들이 좀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 지역 문학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

한편, 지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자칫 지역이 지닌 고유성만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으로 착각되기도 한다. 물론 지역성을 담은 지역 문학은 보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문화행정은 지역 문학 또는 지역 문화를 단순히 과거의 것만을 보존해야 하는 하나의 가치로 인식한다. 이러한 지역 문학에 대한 인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역 문학은 과거지향적인 문학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문학이기 때문이다.

지역 문학이 미래지향적인 문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지역 문학 작품에 대한 텍스트화이다. 여기에는 '책'이라는 문자 텍스트도 있고, 전자책(E-book)도 있으며, 영상텍스트도 있다. 이를 통해 자료의 체계적 축적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는 지역 문학에 대한 문학지도의 작성이다. 문학지도의 작성은 지역 사람들과 지역을 찾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정신적 영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다. 셋째는 지역 문학과 관련한 지역 문학관의 건립이다. 지역 문학관은 지역의 정서 및 가치를 담은 총집합체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지역에 유물과 관련한 또는 생활과 관련한 박물관은 있는데, 지역 문학관이 없다는 것은 반쪽자리 지역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고유성을 토대로 미래 지향성을 추구하는 문화행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문학관의 설립은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역 사람들의 정신을 지역성으로 통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는 앞에서 제시한 미래지향적인 문학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들이 매우 미흡하다.

지역 문학과 문학지도의 작성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둘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 계승한다. 셋째, 지역의 사람들을 공동체적으로 묶어 낼 수 있

다. 넷째, 이를 통해 지역 간의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의 세대적 승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²⁾

한편, 지역 문학지도의 작성에서 지역을 소재로 한 다른 지역 작가의 작품도 고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문학에 나타난 같은 소재를 다른 지역 작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많은 독자들은 이를 통해 지역 문학의 지닌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문학이 좀 더 발전적으로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문학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인 문학지도 작성은 필수 요소가 된다.

Ⅲ. 마라도를 생성하는 다양한 의미

마라도는 다양한 삶을 담아낸다.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도 다양하며, 그곳을 찾은 사람의 삶도 다양하다. 또한 마라도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함을 시인은 시를 통해 각각의 의미를 담아낸다. 그래서 시인이 생성하는 마라도의 의미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에 나타나는 마라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작 혹은 끝의 의미

마라도가 지닌 상징성은 우리나라 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인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땅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시인은 ‘끝’이라는 인식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시인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끝’을 ‘시작’과 같은 의미로 동일시한다. 그래서 마라도는 문학적 측면

2) 강영기, 「제주문학 담론」(국학자료원, 2006), p. 178.

에서 우리나라의 시작이자 끝이 된다.

시작인가

끝인가

순도 높은 국토의 마른 가슴 위로

청록빛 바다가 눈부시다

— 박웅진, 「국토의 최남단 비-마라도에서」에서

끝인지

시작인지

은 천지 바람.

— 이무원, 「마라도」에서

시작과 끝이 없는 최남단

마라도에 가면

— 홍광선, 「마라도(2)」에서

인용 시를 통해 시인은 마라도를 우리 국토의 시작 혹은 끝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그 인식은 시작과 끝이 같은 의미이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은 일반 사람들의 지닌 생각과 차별된 인식이다. 일반 사람들은 마라도를 우리나라의 끝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현재적 공간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시인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마라도를 우리 국토의 끝이 아닌 시작과 끝이 같은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시인의 지닌 통합적 공간 개념이다.

한편, 인용 시에 나타난 “시작과 끝”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인은 마라도에서 느끼는 가슴 뭉클함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마라도가 지닌 상징성과 연관된다. 누구나 국토 최남단에 서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을 지닐 것이다. 특히, 뒤로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지고 앞으로는 한라산이 보이는 장관 앞에 서면 그 감동은 더할 것이다. 이 속에서 마라도가 지닌 의미가 생성된다. 그것은 누구라도 마라도에 서면 그 자리가 우리나라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라는 것이다.

마라도는 분명,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존재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작 혹은 끝이라는 단절적 의미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동일한 연속적 의미를 담는다. 이 속에서 시인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마라도의 의미를 생성한다.

2. 그리움의 공간

섬은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한다. 그리움은 섬이 지닌 속성이다. 이러한 섬의 속성은 마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마라도의 의미 중 하나인 그리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인용한 작품은 마라도와 관련하여 생성된 그리움의 의미를 지닌 예에 해당한다.

오랜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떠있던 제주도
그 남쪽섬 마라도에 가서
사랑할수록 미쳐가는
겨울바다를 보았네.

...(중략)...

한 뺨 운동장
공을 굴리면 곧바로 바달 떨어질
위태로운 벼랑 쪽
교실 하나뿐인 외로운 분교를 지나면
너무도 어울릴 수 없는 선물의 집 초코렛 가게와
서구풍의 신축 건물들
이제 마라도는 전설로 묻혀가고 있었네.

마지막 그리움도 다 날려 보내고
뿌리까지 하얗게 부서져 뒹구는 억새풀의
서글픈 몸부림처럼
모두 모두 비랑으로 떠밀려
시퍼렇게 물어뜯는 파도에 온몸을 내던지고
마침내 미쳐버린 저 세찬
바람의 애무를 보고 말았네.

— 강윤수, 「제주도-마라도에 가서」에서

인용 시에서 시인은 왜 “사랑할수록 미쳐가는”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마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리움 때문이다. 시인은 마라도에서 “사랑할수록 미쳐가는 겨울바다”를 보면서 마라도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한다. 그 그리움은 “너무도 어울릴 수 없는 선물의 집 초코렛 가게와 서구풍의 신축 건물”로 상징되는 세속화 되어가는 마라도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출이다. 이러한 시인이 지닌 안타까운 심정과 순수 자연의 공간으로서 마라도를 지켜내고 싶은 시인의 욕망은 “뿌리까지 하얗게 부서져 뒹구는 억새풀의 서글픈 몸부림”처럼 나타난다. 이 속에 시인의 지닌 마라도에 대한 사랑과 순수 자연 상태인 마라도는 내재한다. 따라서 순수 자연 상태의 마라도는 시인의 지닌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시인은 마라도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마침내 미쳐버린 저 세찬 바람의 애무”를 볼 수 있다.

잠 못 이루는 이 밤
님과 함께 달려가
바다 위에 그림같이 떠 있는
너를 끌어안고 싶다

...(중략)...

님과 같이 마라도 등대에 기대어
사랑 노래 불러 주던 곳

꿈에도 잊지 못하여
이 밤 너를 찾아 왔다

— 김두성, 「마라도」에서

시인이 마라도를 찾은 이유는 그리움 때문이다. 그 그리움의 대상은 사랑하는 “님”일수도 있고, 시인이 찾은 마라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인용 시에 등장하는 마라도는 그리움의 공간이며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님과 함께 달려가” 끌어안고 싶은 곳이 마라도이며, “꿈에도 잊지 못하여 이 밤 너를 찾아”은 곳도 마라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마라도를 통해 사랑하는 “님”과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다.

아득하였으므로
언제나 그리움이었다
애초에 휩쓸려 가 버릴 줄 알았다면
방파제에 걸려 있는 하늘은
아름답지 않았으리라
기다려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울음이 파도치는
보내고 기다리는 유배지의 쓸쓸함을,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소용돌이 속에 동여매었던 어수선한 자리
뼈마디 같이 쭈시는 추억도
떠나보낸다
내 물길 잃고서 닿을 수 있는
깊은 바다 한 복판
서슬 푸르게 자라는 또 다른 섬 하나
나, 너에게로 가고 싶다

— 하두자, 「너에게 가고 싶다-마라도에서」에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마라도는 그리움의 공간이다. 시인은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 대상은 아마도 이미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시인은 헤어짐의 아픔을 더 이상 느끼지 않기 위해 추억마저도 바다 위로 떠나보낸다. 하지만,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서슬 푸르게 자라는 또 다른 섬”이라는 시구가 지닌 의미 때문이다. 그 의미는 바로 시인의 마음 속에 남겨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인은 “애초에 휩쓸려 가 버”리지 못하고 마라도에서 그리움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마라도의 의미로서 그리움의 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살펴본 마라도는 시인에게 그리움의 대상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공간도 된다. 이렇게 마라도가 그리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넓은 바다에 홀로 뜬 섬이라는 인식이 시인에게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생명력의 공간인 마라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생명력의 공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마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라도를 구성하는 들꽃에도 생명력은 존재하고, 마라도를 비춰주는 햇살에도 생명력은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명력의 공간으로서 마라도를 시인은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모슬포 선착장에서
 험한 뱃길 이십오 리
 길길이 뛰는 물결 따라
 절벽 끝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최남단 마라도

겨우내 불어대는 북서풍에
 키작은 억새마저 엎드려 사는

나무 없는 땅에
드문드문 자줏빛 엉경귀가
피어있다

밤새 모여든 고깃배들
돋는 해 맞으며 그물 건지는
왓자지꼴 어부들의 아침 바다

바람과 파도가 주인인 섬에
용암 동굴 위 등대 하나
십자가처럼
하얗게 바랜 채 서 있다.

— 김행숙, 「마라도에서」 전문

인용 시에 등장하는 “엉경귀”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시인은 생명력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무 없는 땅”이라는 공간을 설정한다. 그곳은 북서풍으로 인해 “키작은 역새마저 엎드려 사는” 척박한 곳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드문드문 자줏빛 엉경귀가 피어”있는 모습을 시인은 형상화함으로써 마라도가 지닌 생명력을 들려준다. 인용 시에 등장하는 “왓자지꼴 어부들의 아침 바다”와 “바람과 파도가 주인인 섬에 용암 동굴 위 등대” 역시 마라도의 생명력을 형상화한 시구이다.

그대,
바다 한 가운데
저물도록 귀를 세우고
푸른 깃발 흔들며
찢겨 돌아온 바람소리
부서지는 파도 소리
젖은 채로 맞이하네,

언젠가는
육지에 가 닿을까
뜬 눈으로 지새우더니
오늘은 사나운 먹구름도 채우고
쏟아지는 햇살에
출렁이는구나.

— 김효경, 「마라도」에서

시인은 생명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라도를 향해 들려오는 “찢겨 돌아온 바람 소리”와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 속에는 마라도가 놓인 한계 상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시인은 파도와 바람으로 고통 받는 마라도에서 생명력을 발견한다. 그것은 파도위에 내려앉은 햇살의 출렁임이다. 그 출렁임은 마라도가 지닌 생명력이며, 자연의 모습이다.

억만년 망망 대해
거센 파도 세찬 바람
때리고 몰아쳐도
용케도 견뎌어라
이 땅의 파수꾼 마라도여!

...(중략)...

대양을 누빌 그 날
비상의 나래를 펼
그날의 꿈을 꾸며
마라도는
비바람 파도를 달래고
제 홀로 등실등실 춤을 추고 있었다.
— 오정교, 「마라도에서」 전문

시인은 마라도의 외적 요소를 설정하고 거센 상황을 들려준다. 시인이 거친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마라도를 “거센 파도 세찬 바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위에서 생명력은 나타난다. 그것은 “둥실둥실 춤을 추”는 마라도에 대한 형상화이다. 비바람이 불어도 항상 변함없는 모습을 지닌 마라도를 시인은 “춤을 추고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마라도가 지닌 생명력을 세상에 들려준다.

지금까지 마라도가 지닌 생명력을 살펴보았다. 그 생명력은 결국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나타난다. 비록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마라도는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서 있는 자리에서 마라도를 구성하는 들꽃, 햇살, 파도 등 모든 자연적 요소들은 공존한다. 그 공존의 모습은 바로 생명력이다. 물론 인간 역시 마라도와 함께 공존한다.

IV. 에필로그

지금까지 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마라도가 지닌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역 문학의 차원에서 지역 문인이 창작한 작품을 기초자료로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의 자연물 혹은 지역을 소재로 한 다른 지역의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고찰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문학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역 문학을 미래지향적 문학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한국 문학 혹은 제주 문학에 나타나는 마라도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이다. 그것은 시작 혹은 끝이라는 의미, 그리움의 공간이라는 의미, 그리고 생명력의 공간이다.

시작 혹은 끝이라는 의미는 마라도가 지닌 지정학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시인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작 혹은 끝을 단절적 의미가 아닌 하나가 되는 연속적 의미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생성한다.

그리움의 공간은 마라도가 지닌 섬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섬은 육

지를 향해 무한한 그리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시인은 마라도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생명력의 공간으로서 마라도는 마라도가 지닌 생명력과 관련한다. 마라도를 둘러싼 외적 요건은 척박함 또는 극한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라도를 둘러싼 자연적 요소는 마라도를 지탱하며 생활한다. 그것은 바로 마라도가 지닌 생명력이다.

마라도는 이 글에서 언급한 의미 이외에도 다른 의미를 생성한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마라도가 지닌 다른 의미는 다음 기회에 고찰하기로 한다.

- 핵심어: 지역 문학, 마라도, 제주문학지도

<참고 문헌>

- 강영기, 『제주문학 담론』, 국학자료원, 2006.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2006.
제주문화원, 『문학속의 제주』, 1997.

<Abstract>

Marado In Poems

Kang young-gi

This writing was made to use its contents as basic data for mapping Jejean literature. The first topic in the ambitious enterprise is about Marado(Mara Island). There are three noteworthy points represented in Korean or Jejean literature dealing more or less with Marado.

Firstly, beginning and ending form endless continuity, not irrevocable discontinuity. Secondly, poets long for the southernmost Marado and their lovers as well. Finally. Marado is vitality itself. space of life. Nature around the island sustains and nurtures it.

- Keywords: Regional literature, Marado(Mara Island), Jeju literature map